

블룸버그 자선재단, ‘아스팔트 아트 이니셔티브’ 유럽으로 확장

<https://archinect.com/news/article/150307430/the-asphalt-art-initiative-expands-to-more-cities-as-new-statistics-point-to-improved-pedestrian-safety>
<https://www.bloomberg.org/press/bloomberg-philanthropies-expands-asphalt-art-initiative-in-europe-supporting-cities-to-transform-streets-and-public-spaces-with-art/>

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(Bloomberg Philanthropies)은 4월 13일, 예술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거리안전을 개선하는 ‘아스팔트 아트 이니셔티브(Asphalt Art Initiative)’를 유럽 국가로 확장한다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총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2만 5,000달러(약 3,230만 원)를 보조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
이미 2020~2021년에 미국 41개 도시와 유럽 3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, 이 중 완료된 18개의 프로젝트는 6,000명의 주민과 189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社会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약 9,655m² 크기의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완성되었다.

블룸버그 자선재단과 Sam Schwartz Consulting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, 미국 22개 도시에서 진행된 아스팔트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가 50% 감소하고,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27% 증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2022년 7월 11일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모든 유럽 도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선정된 도시에서는 2023년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. 이 외에도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(Bloomberg Associates)와 밀라노 AMAT(Agency for Mobility, Environment, and Territory)가 제공하는 기술 컨설팅을 받게 된다.



영국 런던

출처: 블룸버그 자선재단 홈페이지. <https://asphaltart.bloomberg.org/gallery/>(검색일: 2022.5.25.)



영국 글래스고